

고향 동향면 미니 북카페에 도서 기증 잇달아

재경 진안군민회 서경석 회장 200여권 등

재경 진안군민회 서경석 회장은(도서출판 정어람 대표) 동향면사무소 미니북카페에 우량도서 200여권을 기증했다. 동향면사무소에서는 민원인 대기장소에 있던 소파를 제거하고 미니 북카페를 만들어 2016년 1월부터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다. 비치된 도서는 총 300여권 정도이지만, 모두 재경향우회원들이 기증한 도서와 면사무소 직원들이 집에서 읽고 난 책을 가져와서 북카페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를 기증한 후원자는 재경군민회장 서경석씨, 동향중학교 총동문회장 박복의씨와 재경동향면향우회 총무인 김관익씨 등이다. 동향면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도서를 기증 받아 북카페에 비치해 두고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주민들과 내방객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로 했다. 한편 미니북카페에서는 직원들이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린 드립커피와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다방커피, 생수 등도 무료로 제공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재경 진안군민회 서경석 회장(도서출판 정어람 대표)은 동향면사무소 미니북카페에 우량도서 200여권을 기증했다



완산동주민센터, 이웃돕기성금·물품기탁 이어져

완산동 주민센터(동장 김길례)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에서 백미 70포, 연탄은행 백미33포와 교복비 80만원, 바울교회 백미 50포, 전주의사협회 백미 40포, 해바라기 로타리 이불 20채, 정현산업 라면 50box, 동·서완산동방범대와 자생단체 등에서 현금과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탁된 물품과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전달됐다. 이웃돕기에 참여한 정현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 지속적인 관심으로 작지만 늘 실천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완산동 김길례 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여해준 기탁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삼천2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 밑반찬기부

삼천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홍성림)는 지난 5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떡과 전 등을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 기부했다.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민센터에 냉장고를 비치해놓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물 유도, 복지 취약계층에게 반찬 및 과일을 공유하는 삼천2동 동네복지 특화사업이다. 새마을부녀회 홍성림 회장은 “민족 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우리 이웃들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병식 삼천2동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이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남로타리클럽, 노송동서 설명절사랑 나눔

전주남로타리클럽(회장 한흥규)는 지난 5일 노송동(동장 박병국)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56박스(14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노송동은 전주남로타리클럽과 지난 2013년 여름 결연을 맺고 연 2회 이상 지역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남로타리 클럽 한흥규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희망을 얻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11일 전북도는 재난분야 언론보도 자료집을 발간해 재난사고 예방 교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2015년 재난분야 언론보도자료집'은 도내 시설물나 메르스 같은 사회 재난예방은 물론 폭설·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간 있었던 각종 재난사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발생한 재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재점검하는 한편 재난분야 언론보도자료집을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제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덕진소방서, 교통사고현장 2차사고방지 총력 대응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중)는 교통사고 현장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출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등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해 구조활동을 수행하던 소방관들이 2차 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2차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구조차 등 출동대를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사고로 인한 소방대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교통사고 발생 시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하고 비상등을 작동한 후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2차 사고에 의한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노영기자



남원소방서, 노인시설 등 특별현장 안전점검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2월중 관내 노인전문병원 등 노유자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맞춤형 행정에 발 벗고 나섰다. 특별점검 착안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관리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전기·유류·가스시설 안전사용여부, 실내마감재 불연화 및 실내장식물 방염물품 사용여부,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분야별 취약요인을 분석해 관계자를 통해 환기 시키는 등 소방안전교육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했다. 점검결과 시설 불량사항 도출시는 현지시정과 시정보완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 지정기한 내 시설완비토록 조치하여 대형화재 예방 및 유사시 초동조치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재 서장은 “요양병원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실전과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화재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덕진경찰, 절도피의자 검거 도운 50대 시민에 감사장수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규)는 11일 설 명절 연휴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를 붙잡아 112에 신고한 김모(여56)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전주 시내 한 여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털던 일당 중 한 명을 붙잡고 112에 신고, 공범 4명을 모두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박성규 덕진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한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치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노영기자

전주 삼천지구대, 설 명절 길 헤매던 노인 가족 품으로

설 명절 전주 아들집을 찾다가 강추위 속에 길을 잃고 헤매던 80대 할머니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가족 품에 안겼다. 지난 9일 오후 삼천지구대 전경노 순경(사진) 등 2명은 관내 공원 주변을 순찰 중 겨울 한파 속에 얇은 옷차림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김모(여·82)씨를 발견, 가족찾기에 나섰다. 전남 화순에 사는 할머니가 아들집에 왔다가 길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은 전 경은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수소문 끝에 가족 품으로 무사히 인계했다. /이노영기자



덕진지구대경찰들, 신속한 응급조치로 아기 생명 지켜

설 연휴 고열로 생명이 위급한 어린이를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 소중한 새명을 지켜낸 경찰관들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설 명절 미담의 주인공은 덕진지구대 김성호, 홍성림 경위와 정지연, 오영호 경사. 이들은 지난 10일 밤 10시 40분께 신중품루에 의한 급성고열로 급히 아기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영아의 호흡이 멈추자 당황한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뛰쳐나갔다. 갑작스런 사태에 아기를 끌어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보호자를 발견한 경찰들은 영아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가까운 병원으로 바깥거리를 내달렸다.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정지연 경사가 심폐소생술과 함께 경직된 아기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후송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려냈다. /이노영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월 23일 등록(매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1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세우빌)

부회장 서재철 발행·편집인 김동만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95-418	중원지사 010-8008-6074	남원지사 632-3986	고흥지사 586-6889
삼정지사 010-2333-491	인후지사 248-8855	김제지사 570-8855	임실지사 010-99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084
홍성지사 010-8965-9635	관산지사 440-1567	영광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8-3787
	익산지사 858-4923	순창지사 658-0444	정읍지사 010-3882-8157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1-4250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